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10, Vol. 1, No. 3, 205-219

자백자발성 판단에 대한 용의자의 외현적 정서와 기록매체의 효과: 예비연구

표 지 민　　오 영 록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백의 자발성 판단에 대하여 자백하는 용의자의 외현적 정서(적극 v. 소극)와 기록매체(녹화 v. 녹음)의 종류가 가지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동일한 자백시나리오를 용의자의 외현적 정서 상태를 달리하여 두 편의 자백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에서 자백하는 용의자의 행동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들이 자백자발성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음성만 녹음된 자백을 청취한 참가자들이, 자백이 녹화된 동영상을 본 참가자들 보다 용의자의 자백을 더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 판단에 대한 확신감도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는 녹화된 자백의 자발성 판단에 대한 카메라 관점 편파와는 다른 유형의 편파가 녹음된 자백의 자발성 판단에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요어 : 자백, 자발성, 용의자의 외현성, 매체

† 교신저자: 박광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성봉로 410
E-mail : kwangbai.chungbuk.ac.kr

www.kci.go.kr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심문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흔히 자백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자백은 재판에서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증명을 지나치게 자백에 의존하게 되면 강압수사가 행해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물적 증거를 발견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대신, 용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자유롭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임의성 혹은 자발성(voluntariness)이 없는 형사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만약 수사기관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 혹은 자발성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서 행한 자백은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죄용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모습을 동영상(비디오)으로 녹화한다. 범죄용의자가 자백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이유는, 만약 용의자가 기소된 후 법정에서 범죄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에서 자백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의 자발성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경우에, 재판의 사실판단자(판사 혹은 배심원)는 수사기관에서 녹화된 용의자의 자백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행해진 자백이 용의자의 자유로운 임의성과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자백 및 기타 보강증거를 근거로 유죄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백증거를 배척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 유죄판단을 하거나,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무죄판단을 해야 한다.

자백의 자발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상으로 녹화된 범죄용의자의 자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 수사관이 심문당하는 용의자에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위협하거나, 자백을 하면 여러 형태의 선처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용의자가 갖도록 유도하면, 관찰자는 용의자의 자백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Kassin & Wrightsman, 1980, 1981). 그러나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관의 언어적 행동 외에, 영상 녹화된 자백에서 자발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많지 않다.

Lassiter & Irvine(1986) 은 수사기관에서 녹화된 용의자의 자백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자백의 자발성이 그 동영상을 촬영한 카메라의 위치 즉, '관점(perspectiv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녹화된 동영상에 자백하는 용의자의 얼굴 전면이 보이도록 촬영하면(용의자 초점), 수사관의 얼굴 전면이 보이거나(수사관 초점), 용의자와 수사관의 얼굴 측면이 동시에 보이도록(동시 초점) 촬영하는 경우보다 자백의 자발성이 더 높게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카메라 관점 편파

www.kci.go.kr

(camera perspective bias)" 라고 부른다 (Lassiter, 2002, 2004; Lassiter, Geers, Munhall, Handley, & Beers, 2001; Lassiter, Geers, Munhall, Ploutz-Snyder, & Breitenbecher, 2002; Lassiter, Ratcliff, Ware, & Irvin, 2006). 녹화된 자백에 대한 자발성 판단이 카메라의 위치 혹은 '관점'에 따라서 편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그 편파를 보다 일반적인 "착각귀인(illusory causation)"의 일종으로 해석한다(Lassiter & Irvine, 1986). 착각귀인이란 물리적 사건에 연관된 사물들 중에서 특별히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거나 상대적으로 시선(주의)을 끄는 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물을 진행 중인 사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MacArthur, 1980; Taylor & Fiske, 1978).

Lassiter, Slaw, Briggs, & Scanlan(1992) 는 용의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녹화영상이 용의자의 자백을 더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이유는 녹음이나 녹취록보다 관찰자의 주의를 더 용의자에게 집중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수사관 초점의 영상 녹화된 자백은 수사관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관찰자들로 하여금 용의자 자백이 수사관의 강압적인 심문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메라 관점 편파는 여러 유형의 범죄용의자의 자백 동영상과 여러 유형의 관찰자(i.e., 연령, 전문지식, 성격)들, 그리고 여러 유형의 비디오자백(i.e., 모의자백, 실제자백, 동영상길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매우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Lassiter, 2002; Lassiter, Geers, Munhall, Ploutz-Snyder, & Breitenbecher, 2002; Lassiter, Munhall, Geers, Handley, & Weiland, 2001; Lassiter, Munhall, Berger, 2005; Lassiter, Diamon, Schmidt, Elek, 2007; Lassiter, Slaw, Briggs, & Scanlan, 1992). 즉, 카메라 관점 편파 현상은 절도, 강간, 마약 등 여러 종류의 범죄용의자들의 자백 동영상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고, 동영상에서 보이는 용의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피험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고, 관찰자가 법전문가일 때도 여전히 나타나며(Lassiter et al., 2007), '인지 욕구'나 '귀인복잡성'의 점수가 높거나 낮은 관찰자에서 공히 나타난다. 또한 카메라 관점 편파는 상영시간이 길거나 짧은 동영상에서 공히 나타날 수 있고(Lassiter, 2002), 연출된 자백 동영상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용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자백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도 나타나는(Lassiter et al., 2009) 매우 확고한 현상이다.

용의자 모습

관찰자가 자백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자백의 자발성은 아마도 동영상의 내용, 특히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용의자와 수사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가장 크게 좌우될 것이다. 임의성 혹은 자발성(voluntariness) 의 사전적 개념에는 '기꺼움(willingness)' 혹은 '자유의지(free intent)'가 포함된다(voluntariness: (Synonyms-voluntary, intentional, deliberate, willful, willing)-These adjectives mean being or resulting from one's own free will). 즉,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기꺼이 하는 것으로 지각되면, 그 행위는 자발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관찰자는 자연스럽게 용의자가 '기꺼이' 자백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 행

www.kci.go.kr

동, 그리고 심지어 몸짓과 같은 정보들로부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빠르게 그 인상들을 형성 하는데(Gawronski, 2003), 이런 과정은 인식되는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심지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Uleman, Hon, Roman, & Moskowitz, 1996). 결국, 그 사람의 모습, 행동, 말투, 몸짓과 같은 요소들은 앞으로 일어날 행동을 예측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Newman, 1996). 따라서 심문하는 수사관의 행동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모습, 말투, 자세와 같은 외현적 행동이 관찰자들로 하여금 자백하는 용의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하고, 임의성/자발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자백하는 용의자가 겁먹은 모습을 보이거나, 주눅이 들고, 수사관의 시선을 회피하고, 대답하기 주저하거나, 지친 목소리로 말을 할 때보다, 용의자가 좀 더 명료하게 말을 하고, 수사관과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자백의 자발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백의 자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용의자의 행동적 특성이나 정서적 상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백하는 용의자의 외현적 행동이 달라지면 관찰자들의 임의성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매체

카메라 관점 편파가 착각귀인 현상의 일종이라면, 용의자 초점으로 촬영된 자백동영상은 자백의 자발성 판단을 편파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수사관 초점으로 촬영된 자백동영상은 심문의 강압성 판단을 편파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Lassiter, Slaw, Briggs, & Scanlan(1992)는 마주 앉은 용의자와 수사관의 옆면이 동시에 동등한 비율로 보이도록 촬영한 동시 초점의 동영상과,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은 자백녹음이 용의자 초점 혹은 수사관 초점으로 녹화된 영상 자백보다 덜 편파된 자발성 판단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동시 초점의 동영상과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은 자백녹음이 자백하는 용의자와 심문하는 수사관에 대해서 관찰자에게 제공하는 시각적 정보는 용의자 초점 혹은 수사관 초점으로 녹화된 동영상보다 제한적이다. 특히 자백녹음은 용의자와 수사관의 표정이나 눈에서 파악될 수 있는 미묘한 정서표현을 관찰자가 전혀 포착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시각적 단서의 제한은 자백하는 용의자의 자발성과 심문하는 수사관의 강압성 판단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떤 판단에서 어떤 차이를 초래하는지, 혹은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규명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만 있는 자백녹음이 영상 자백에 비해서 관찰자들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주의의 집중을 저하시키는지를 검증하였다.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두 가지다. (1) 자백하는 용의자의 외현적 행동 특히, 외현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백의 적극성이 달라지면 관찰자들의 임의성 판단이 달라질 것인데, 자백하는 용의자가 탈진한 모습을 보이고, 수사관의 시선을 회피하며, 대답하기 주저하고, 지친 목소리로 말을 할 때(소극적 자백) 보다, 용의자가 명료하게 말을 하고, 수사관과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수사관의 질

www.kci.go.kr

문에 대답을 할 때(적극적 자백), 관찰자들은 용의자 자백의 자발성을 더 높게 판단하고 수사관 심문의 강압성을 더 낮게 판단할 것이다. (2) 음성만 녹음된 "음성 자백"은 비디오로 녹화된 "영상 자백"보다 관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발성, 강압성 판단에 대한 관찰자의 확신감과, 심문/자백 내용에 대한 관찰자의 기억을 저하시킬 것이다.

방 법

용의자의 외현적 행동에 따른 자발성과 강압성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범죄사건으로 용의자의 외현적 모습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의자백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관찰자들로 하여금 용의자의 자발성과 수사관의 강압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모의자백 중, 한 가지는 용의자가 탈진한 상태 즉, 소극적으로 자백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의 자백에서는 용의자가 비교적 생기 있는 상태 즉, 외현적으로 자백의 적극성이 높은 모습이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매체(음성, 영상)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모의 자백 시나리오를 각각 영상과 음성으로 촬영, 녹화하였다. 관찰자들은 2(소극적 v. 적극적) X 2(음성 v. 영상)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모의자백을 관찰/청취한 후, 자백의 자발성, 심문의 강압성, 판단에 대한 확신감, 자백내용의 진실성, 용의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응답하고, 마지막으로 심문과 자백 과정에서 이루어진 용의자와 수사관의 발언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참가자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50명의 학생(남자 24명, 여자 26명)이 참가하였고, 그들의 평균 나이는 22.58세였다.

모의자백

본 실험에 사용된 모의자백에서 용의자(19세의 여고생)는 실종된 자신의 여동생과 말다툼 끝에 여동생의 어깨를 힘껏 밀어 뜻하지 않게 죽게 하고, 엄마의 도움으로 동생의 시신을 위치 불상의 야산에 암매장하였다고 자백한다.

도구

용의자의 외현적 행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의자백 동영상과 녹음이 제작되었다. 똑같이 15분 16초 분량의 두 가지 동영상은 같은 내용과 대사로 이루어져있고, 수사관은 두 가지 동영상에서 일관되게 중립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로 심문하고 있지만, 용의자는 같은 자백을, 같은 대사로 진술하면서도 전혀 다른 외현적 모습과 행동을 보이도록 제작되었다. 첫 번째 자백 동영상에서 용의자는 고개를 주로 숙이고 있고, 거의 움직임이 없고, 수사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며 답변하고, 느린 저음으로 말을 한다(소극적). 두 번째 자백 동영상에서 용의자는 자신의 진의가 정확히 표현되도록 말을 또박또박하고, 망설임 없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거의 항상 수사관의 눈을 쳐다보며 진술을 하고, 간혹 손짓을 하기도 한다(적극적).

www.kci.go.kr

그림 1. 적극적인 용의자의 자백 동영상 이미지

그림 2. 소극적인 용의자의 자백 동영상 이미지

두 가지 동영상은 모두 용의자 초점으로 촬영되었는데, 영상에서 용의자의 얼굴과 상반신 전면이 완전히 보이고, 수사관의 뒷모습이 약 절반 정도 보이도록 카메라 관점을 맞추어 녹화와 녹음을 동시에 하였다. 용의자 초점으로 자백장면을 녹화한 이유는, 실제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심문과 자백하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용의자에 초점을 두고 녹화를 하기 때문이다(Geller 1992; Kassin 1997).

절차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본 실험의 목적에 대해 "본 조사는 자백하는 범죄용의자의 자백 자발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간략히 소개한 후, 자발적인 자백의 법적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은 간단한 사건개요를 읽고, 자백 영상(녹음)을 본(들은) 후에, 용의자의 자백이 자발적인 것인지, 강요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실험자의 설명을 들었다. 실험자의 설명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네 가지 조건(소극적-영상, 적극적-영상, 소극적-음성, 적극적-음성) 중 한 가지 조건에 할당되어 모의자백을 관람하거나 혹은 청취하였다. 영상/녹음 자백을 관찰/청취한 후에, 참가자들은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종속측정치

참가자들은 용의자의 자발성에 대하여 "용의자의 자백이 얼마나 자발적인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9점 척도(1 = 전혀 자발적이 아니다, 9 = 매우 자발적이다)로 응답하였고, 수사관의 강압성에 대하여 "수사관의 심문이 얼마나 강압적인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9점 척도(1= 전혀 강압적이 아니다, 9 = 매우 강압적이다) 로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자발성판단과 강압성판단을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하여 각각 9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용의자 자백 내용이 얼마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용의자가 얼마나 유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9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의자와 수사관이 했던 말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의자가 했던 말과 관련한 문항 20개와 수사관이 했던 말과 관련된 문항 20개에 대하여 용의자와 수사관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의 여부를 '예/아니오'로 응답토록 하였다. 용의자가 했던 말과 관련한 문항 20개 중 10개는 "예"가 옳은 응답이고, 나머지 10개는 "아니오"가 옳은

www.kci.go.kr

응답이다. 또한 수사관이 했던 말과 관련한 문항 20개 중 10개는 “예”가 옳은 응답이고, 나머지 10개는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다. 용의자가 했던 말과 관련한 문항과 수사관이 했던 말과 관련한 문항은 무작위로 섞여서 제시되었다.

결 과

자발성판단 및 그 확신감과 강압성판단 및 그 확신감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은 본 실험에 사용되었던 용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용의자의 자발성(M = 4.64)에 비해 수사관의 강압성(M = 6.30)을 더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자발성과 강압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체로 확신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자발성판단 확신 M = 6.50, 강압성판단 확신 M = 7.16). 그리고 자백내용의 진실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9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이 5.02(s = 1.89, n = 24) 였으며, 용의자의 유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9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는 전체 평균이 5.42(s = 2.09, n = 24)였다.

자발성판단, 강압성판단과 판단에 대한 확신감

참가자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자백의 자발성, 심문의 강압성 판단에 대한 용의자 적극성과 매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용의

표 1. 자발성판단 및 그 확신감과 강압성 판단 및 그 확신감의 평균

매체	판단	용의자 자백 적극성		전체
		소극적	적극적	
		M (s, n)	M (s, n)	M (s, n)
영상	자발성	3.92 (1.38, 12)	4.58 (2.47, 12)	4.25 (1.98, 24)
	강압성	6.75 (1.14, 12)	6.00 (2.13, 12)	6.38 (1.72, 24)
	자발성판단 확신	6.83 (1.47, 12)	5.25 (1.82, 12)	6.04 (1.81, 24)
	강압성판단 확신	7.33 (0.78, 12)	6.83 (1.80, 12)	7.08 (1.38, 24)
음성	자발성	4.50 (1.98, 12)	5.43 (1.95, 14)	5.00 (2.20, 26)
	강압성	6.67 (1.23, 12)	5.86 (1.83, 14)	6.23 (1.61, 26)
	자발성판단 확신	6.33 (1.92, 12)	7.43 (0.76, 14)	6.92 (1.50, 26)
	강압성판단 확신	7.08 (1.24, 12)	7.36 (1.01, 14)	7.23 (1.11, 26)
전체	자발성	4.21 (1.69, 24)	5.04 (2.20, 26)	4.64 (2.00, 50)
	강압성	6.71 (1.16, 24)	5.92 (1.94, 26)	6.30 (1.64, 50)
	자발성판단 확신	6.58 (1.70, 24)	6.42 (1.72, 26)	6.50 (1.69, 50)
	강압성판단 확신	7.12 (1.02, 24)	7.12 (1.42, 26)	7.16 (1.24, 50)

www.kci.go.kr

자가 소극적일 때(M = 4.21), 적극적일 때(M = 5.04)보다 용의자 자백의 자발성에 대해 더 낮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사관의 강압성 판단에서는 반대로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M = 6.71), 적극적일 때보다(M = 5.92) 수사관 심문이 더 강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매체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발성이 음성자백(M = 5.00)에서 영상자백(M = 4.25)보다 높게 판단된 반면, 강압성은 음성자백(M = 6.23)이 영상자백(M = 6.38) 보다 근소하게 낮게 판단되었다.

확신감에서는 매체에 의한 차이가 용의자 적극성에 의한 차이보다 큰 경향이 있었다. 자발성판단에 대한 확신감의 경우, 영상자백 조건(M = 6.04)보다 음성자백 조건(M = 6.92)에서 더 높았지만, 용의자가 소극적인 조건(M = 6.58)과 적극적인 조건(M = 6.42) 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강압성판단에 대한 확신감도 영상자백 조건(M = 7.08)보다 음성자백 조건(M = 7.23)에서 더 높았지만, 용의자가 소극적인 조건(M = 7.12)과 적극적인 조건(M = 7.12)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

자발성 판단에 대한 확신감에서 매체와 용의자의 자백 적극성 사이에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다(F(1, 49) = 9.51, p < .05). 즉, 영상자백을 본 경우에는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M = 6.83), 적극적일 때보다(M = 5.25) 자발성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 높은 반면, 녹음된 음성자백을 들은 경우에는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 (M = 6.33), 적극적일 때보다(M = 7.43) 자발성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패턴의 상호작용 경향성이 강압성판단의 확신감에서도 나타났다. 영상자백을 본 경우에는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M = 7.33), 적극적일 때보다(M = 6.83) 강압성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 높은 반면, 녹음된 음성자백을 들은 경우에는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M = 7.08), 적극적일 때보다(M = 7.36) 강압성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

기억

용의자, 수사관이 했던 말에 대한 기억 점수에 대하여 매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49) = 14.99, p < .001). 영상자백 조건의 참가자들 보다(M = 25.04), 음성자백 조건의 참가자들이(M = 28.12) 심문 과정 동안 용의자와 수사관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더 잘 기억했다.

참가자들은 용의자의 모습이 명료하게 보이는 영상자백 조건에서, 용의자의 자백 적극성이 낮을 때 용의자가 한 말에 대한 기억(M = 13.33)이 수사관이 한 말에 대한 기억(M = 10.75)보다 더 높았다. 영상자백 조건에서, 용의자의 자백 적극성이 높을 때도 마찬가지로 용의자가 한 말에 대한 기억(M = 15.50)이 수사관이 한 말에 대한 기억(M = 10.50)보다 더 높았다. 용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음성자백 조건에서도, 용의자의 자백 적극성에 상관없이 용의자가 한 말에 대한 기억(저적극성 M = 16.42, 고저극성 M = 17.07)이 수사관이 한 말에 대한 기억(저적극성 M = 10.75, 고적극성 M = 10.50)보다 더 높았다(표 2).

진실성, 유죄성 판단

녹음된 음성자백을 들은 참가자들이(M = 5.42), 영상자백을 본 참가자들보다(M = 4.58) 용의자의 자백의 진실성을 더 높게 평정하는

www.kci.go.kr

표 2. 용의자의 말, 수사관의 말에 대한 기억점수의 평균

매체	기억	용의자 자백 적극성		전체
		소극적	적극적	
		M (s, n)	M (s, n)	M (s, n)
영상	용의자의 말	13.33 (2.35, 12)	15.50 (1.45, 12)	14.42 (2.21, 24)
	수사관의 말	10.75 (1.49, 12)	10.50 (2.07, 12)	10.62 (1.77, 24)
	총점	24.08 (2.78, 12)	26.00 (2.70, 12)	25.04 (2.85, 24)
음성	용의자의 말	16.42 (1.78, 12)	17.07(1.14, 14)	16.77 (1.48, 26)
	수사관의 말	10.67 (1.92, 12)	11.93 (1.60, 14)	11.35 (1.83, 26)
	총점	27.08 (2.91, 12)	29.00 (2.39, 14)	28.12 (2.76, 26)
전체	용의자의 말	14.87 (2.58, 24)	16.35 (1.50, 26)	15.64 (2.19, 50)
	수사관의 말	10.71 (1.68, 24)	11.27 (1.93, 26)	11.00 (1.82, 50)
	총점	25.58 (2.85, 24)	28.12 (2.76, 26)	26.64 (3.18, 50)

경향이 있었고, 용의자의 유죄성 판단에서도, 음성자백을 들은 참가자들이(M = 5.92), 영상자백을 본 참가자들보다(M = 4.88) 유죄성을 더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보다(M = 4.67), 용의자가 적극적일 때(M = 5.35), 참가자들은 용의자 자백의 진실성을 더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용의자의 유죄성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보다(M = 5.13), 용의자가 적극적일 때(M = 5.69) 유죄성을 더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매우 적었지만, 향후의 연구를 위한 가설도출의 의미를 가지는 예비연구로서 용의자의 외현적인 적극성에 따른 자백의 자발성, 심문의 강압성 판단의 차이, 매체(영상과 녹음)에 따른 자발성, 강압성 판단의 차이, 그리고 그 판단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확신감의 차이에 대해 확정적인 통계적 결론보다는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 적극적일 때보다 자백하는 용의자의 자발성이 낮게 판단되고, 심문하는 수사관의 강압성이 높게 판단되었다. 즉, 자백하는 용의자의 외현적 행동에 따라서 자백하는 용의자의 자발성과 심문하는 수사관의 강압성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용의자가 외현적으로 소극적일 때,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되고, 강압성이 높게 판단되는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소극적인 용의자는 외현적인 행동의 변화가 매우 적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용의자의 행동으로부터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각적 단서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주목하게 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용의자가 외현적으로 적극적일 때, 시각적,

www.kci.go.kr

청각적으로 두드러지는 그의 외현적 행동이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와 비교하여 훨씬 두드러지고, 눈에 띄며 결국 관찰자들로 하여금 그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용의자 자백의 원인을 용의자에게 귀인하도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상자백 조건에서는 용의자가 소극적일 때, 참가자들은 용의자 자백의 자발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더 확신을 가졌고, 음성자백 조건에서는 용의자가 적극적일 때 확신감이 더 컸다. 이 결과의 가능한 이유는 영상에서 적극성이 낮은 용의자의 탈진하고 좌절한 외현적 모습이 용의자의 정서/감정 상태(좌절, 우울)를 매우 명료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 용의자의 정서/감정 상태가 명료한 반면, 자발성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희박하므로, 참가자들은 용의자의 자백 자발성이 낮다는 판단을 분명하게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음성자백을 녹음으로 들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소극적인 용의자의 탈진하고 좌절한 외현적 모습을 볼 수 없었으므로 용의자의 내면적 심리상태(정서/감정)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용의자의 목소리가 힘이 없고 약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자발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용의자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때 용의자의 목소리가 크고 명료하므로 참가자의 판단확신감이 더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백하는 용의자의 적극성 여부에 따른 자백의 자발성 판단 및 그 판단에 대한 확신감의 차이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적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가설을 제시해준다. 즉, 용의자의 자발성에 대한 시각적 단서/정보(자백 적극성)는 자발성판단 자체에 영향을 주는 반면, 용의자의 내면적인 정서/감정의 명료성은 자발성판단에 대한 확신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매체(영상 vs 음성)에 따라 관찰자들의 판단 확신감이 달라지고, 용의자와 수사관의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음성자백은 영상자백보다 관찰자에게 더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므로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도식, 선입견 등이 자발성판단에 개입할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관찰자가 자발성/강압성을 판단하는 당시의 상황과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암시적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전체적으로 음성자백을 들은 참가자들이 영상자백을 본 참가자들에 비하여 용의자 자백의 자발성을 근소하나마 더 높이 평가하였고, 수사관 심문의 강압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용의자가 적극적인 경우에 그 판단들에 대한 확신감이 모두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음성자백을 들은 참가자들이 영상 자백을 본 참가자들에 비해서 용의자와 수사관의 대화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였는데, 특히 용의자가 한 말에 대해 음성자백을 들은 참가자들이 영상 자백을 본 참가자들보다 더 정확히 기억하였다. 대상에 대하여 다양하고 세세한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게 하지만(Gill, Swann, & Silvera, 1998), 반대로, 많은 정보가 있는 환경에서, 대상을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편파된 판단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 외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들이 사람들을 더 부정확한 판단을 하게 할 수도 있다(Taylor, Peplau, & Sears, 2006). 이 결과는 음성자백이 가지는 한정된 정보가 관찰자들로 하여금 더 주의 깊게 용의자의 자백을

www.kci.go.kr

듣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백내용에 대한 기억력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음성자백을 들은 참가자들은 영상자백을 본 참가자들보다 대화내용에서 자발성의 단서를 찾기 위하여 녹음된 용의자-수사관 대화를 더 집중해서 청취했는데, 특히 용의자가 하는 말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 높아진 집중도에 의해 대화내용, 특히 용의자의 진술에 대한 기억이 더 정확해졌고, 그 집중의 결과로 용의자로부터 더 많은 자발성 단서가 포착되어, 용의자 자백의 자발성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 모두 높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논문의 초두에서 카메라 관점 편파는 착각귀인 현상의 일종이고, 착각귀인은 사건에 연관된 사물들 중에서 특별히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거나 상대적으로 시선(주의)을 끄는 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물을 진행 중인 사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일컫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영상자백 조건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용의자 초점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보고 판단한 용의자의 자백 자발성은 그러한 카메라 관점에 의해 일정 정도 편파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헌데 그러한 동영상을 보지 않고 녹음된 음성만 들은 음성자백 조건의 참가자들이 용의자의 자백 자발성을 영상자백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은 음성자백 조건의 참가자들이 영상자백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더 많이 편파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약 이 가능성이 실제라면, 카메라 관점 혹은 착각귀인이 유발하는 편파로부터 자유로워야할 음성자백 조건의 참가자들이 더 많이 편파되는 이유는 아마도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도식, 선입견 등이 자발성판단에 더 많이 개입하거나, 관찰자가 자발성/강압성을 판단하는 당시의 상황과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암시적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음성자백 조건에서 자백 자발성 판단의 편파를 초래하는지 적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재판에서 자백증거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다. 따라서 그 제도는 과학적으로 보다 정교해지고 치밀해져야 한다. 녹화된 자백 혹은 심문이 사실판단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카메라 관점 편파는 영상녹화제도의 정교성과 치밀성을 위하여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다. 영상녹화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정치한 사실인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관점 편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영상녹화제도에서 용의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카메라 관점이 초래할 수 있는 편파 즉, 재판에서 피고인을 궁극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자백 자발성의 불공정한 과대판단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수사관 초점으로 촬영한 영상, 동시초점으로 촬영한 영상, 자백 녹취록, 혹은 음성만 녹음된 오디오 기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Lassiter et al. 1992; Lassiter, Beers et al. 2002).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대안들에는 카메라 관점 편파 대신에 다른 오염 혹은 편파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에서 임의성 혹은 자발성(voluntariness) 의 사전적 개념에는 '기꺼움(willingness)' 혹은 '자유의지(free intent)'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관찰자는 용의자가 '기꺼이' 자백하는지

www.kci.go.kr

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관 초점으로 촬영한 영상, 동시초점으로 촬영한 영상, 자백 녹취록, 혹은 음성만 녹음된 오디오 기록이 제시되고, 그 기록들 중 하나를 보거나 듣고 용의자 자백의 자발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백하는 용의자의 '기꺼움'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되고, 그러한 정보의 제한은 관찰자로 하여금 용의자의 '기꺼움' 에 관하여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상상에는 자연히 관찰자가 평소에 가진 선입견, 고정관념, 스키마가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특히 관찰자가 자발성/강압성을 판단하는 당시의 상황과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암시적 영향이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영상녹화제도에서 자백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의자 초점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관점 편파를 희석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용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수사관 초점 혹은 동시 초점의 영상, 자백 녹취록, 혹은 음성만 녹음된 오디오 기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카메라 관점 편파 이외의 다른 편파가 개입되지 않는지, 개입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관한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카메라 관점 편파, 수사관의 불법적인 심문 방식 등과 더불어 용의자의 외현적 행동(상태)에 의해 용의자 자백의 자발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자발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의 연구들이 카메라 관점과 같이 기술적이고,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 잘못된 인과관계를 귀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자백의 자발성 판단과, 자백하고 있는 용의자의 외현적 행동(상태)의 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자발성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연령과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다. 또한, 용의자의 성별과 나이, 범죄사건의 심각성과 종류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언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발견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경향성들에 대하여 앞으로, 더 많은 참가자를 확보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사건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Gawronski, B. (2003). Implicational schemata and the correspondence bias: On the diagnostic value of situationally constrai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54-1171.

Geller, William A. (1992) "Police Videotaping of Suspect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Issues and Practices," *A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e of Justice.*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Justice.

Geller, William A. (1992) "Police Videotaping of Suspect Interrogations an Confessions: A

www.kci.go.kr

Preliminary Examination of Issues and Practices," A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e of Justice.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Justice.

kassin, S. M., & & Wrightsman, L. S. (1980). Prior confessions and mock juror verdic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133-146.

Kassin, S. M., & Wrightsman, L. S. (1981). Coerced conffesions, judical instruction, and mock juror verdic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489-506.

kassin, Saul M., and Katheine Nuemann (1997) "On the Power of Confession Evidence: An Experiment Test of the Fundamental Difference Hypohesis," *Law and Human Behavior 21*: 469-84.

Daniel Lassiter, G.; Diamond, S. S.; Schmidt, H. C. (2007). Evaluating videotaped confessions: Expertise provides no defense against the camera-perspective effect. *Psychological science,* Vol.18 No.3.

G. Daniel Lassiter. (2002). Illusory Causation in the Courtroo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204-208

Lassiter, G. D., Geers, A. L., Munhall, P. J., Handley, I. M., & Beers, M. J. (2001). Videotaped confessions: Is guilt in the eye of the camera?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3, pp.189-254). New York: Academic.

Lassiter, G. D., Geers, A. L., Munhall, P. J., Ploutz-Snyder, R. J., & Breitenbecher, D. L. (2002). Illusory causation: Why it occurs. Psychological Science, 13, 299 – 305.

Lassiter, G. D., & Geers, A. L. (2004). Bias and accuracy in the evaluation of cofnession evidence. In G. D. Lassiter (Ed.), Interrogations, Confessions and Entrapment(pp.197-214). NewYork: Kluwer/Plenum.

Lassiter, G. D., & Irvine, A. A. (1986). Videotaped confessions: The impact of camera point of view on judgments of coerc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268 – 276.

Lassiter, G. Daniel, Patrick J. Munhall, Andrew L. Geers, Paul E. Weiland, and Ian M. Handley, and Andrew L. Geers (2005) "Attributional Complexity and the Camera Perspective Bias in Videotaped Confession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7: 27-35

Lassiter, G. D., Ratcliff, J. J., Ware, L. J., & Irvin, C. R. (2006). Videotaped confessions: Panacea or Pandora's box? Law and Policy, 28, 192-210.

Lassiter, G. D,. Slaw, R. D., Briggs, M. A., & Scanmlan., C. R. (1992). The potential for bias in videotaped confess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1838-1851.

McArthur, L. Z. (1980). Illusory causation and illusory correlation: Two epistemological accou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6, 507 – 519.

Newman, L. S. (1996). Trait impressions as heuristics for Predicting futur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395-411.

Shelley E. Taylor, Letitia Anen Peplau & David O. Sears (2006). Person Perception: Forming Impressions of Others. (Ed). Social Psychology (Vol. 2, p.53). Person Education Imternational Press.

www.kci.go.kr

Taylor, S. E., & Fiske, S. T. (1978). Salience, attention, and attribution: The top of the head
phenomena.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11, pp.249 – 288). New York: Academic Press.

Uleman, J. S., Hon, A., Roman, R. J., & Moskowitz, G. B. (1996). On line evidence for spontaneous trait inference at encod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377-394.

1 차원고접수 : 2010. 10. 4.
심사통과접수 : 2010. 11. 1.
최종원고접수 : 2010. 11. 2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10, Vol. 1, No. 3, 205-219

The Effects of Suspect's Emotional Demeanor(active v. passive) and Record Medium (audio or video) on the Voluntariness Judgment: A Preliminary Study

Jimin Pyo **Yeongrok Oh** **Kwangbai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uspet's demeanor and the type of record medium on the voluntariness judgments. It was suggested that the behavioral and emotional demeanors of the suspect confessing on the video could influence the voluntariness judgment. The suspect who appeared as relatively active in confessing tended to be judged as more voluntary than the same suspect who appeared as relatively passive on the video.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subjects in the audio condition tended to judge the confession as more voluntary and be more confident in their judgments than did the subjects in the video condition. This result implied a possibility that audio-taped confession may also have a potential for bias in voluntariness judgment.

Key words : confession, voluntariness, suspect's demeanor, media

www.kci.go.kr